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사회그늘 자비손길 펴겠다"

인천불교련 혜운스님



인구 250만명의 인천광역시. 개신교의 입항지로 유명한 인천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1947년 8월 인천불교연합회가 발족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신도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활발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어느 종교보다도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73년부터 9 · 10 · 11 · 12 · 13 · 15대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또다시 제22대 회장에 취임한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혜운(수도사 주지)스님은 "불타의 혜명을 이어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며,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연합회 설립목적을 올해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54년간 300여 회원사찰로 연합회를 발전시켜 온 혜운스님은 "여느해처럼 조용히 어두운 곳에서 불교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천불교연합회 사업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직자 취업알선 · 무료 급식

군 · 교도소 위문 · 이미용 봉사

인천불교련은 올해도 실직자 취업알선 및 저소득층 무료급식, 저소득층 가정 및 결식학생 생활비 지원, 무료진료, 장학사업, 무료 이 · 미용봉사, 경로위안 법회, 종교화합(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군 · 교도소 불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는 군장병 위문, 사회불우시설 방문, 경찰가족을 위한 법회가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전회원 사찰이 보훈가족돕기 운동 및 전몰 군 · 경 · 장병과 유주무주 영가들을 위한 우란분절 천도재를 봉행한다. 8월에는 우란분절 천도법회와 동시에 다양한 경로효친 사상을 전개하고, 9월에는 인천구치소 재소자들의 조상다례법회를 봉행한다. 10월경에는 인천불교 발전 및 인성회복을 위한 불교지도자법회를 개최한다.

이들 다양한 사업들은 불교연합회의 지원아래 회원 사찰과 산하 신행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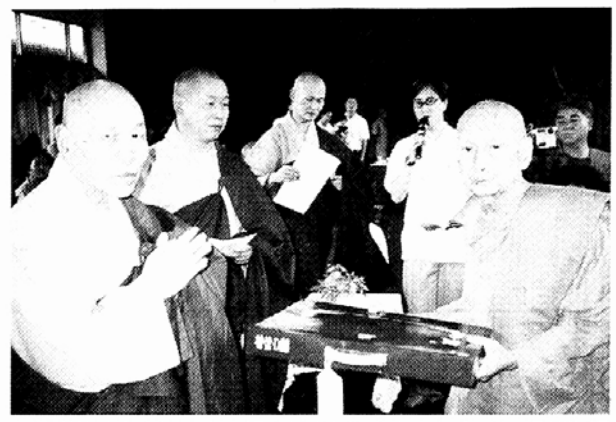
연꽃마을 인천지부와 피안사회복지관은 양방과 한방을 통한 노인 무료 진료와 급식사업을, 인천불교사회복지관과 피안사회복지관은 무료 이동목욕차량 봉사와 도시락 배달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98년 구치소내에 높이 3.3미터의 아미타불을 봉안하기도 한 인천구치소 불교위원회는 재소자 교화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약사사와 호불사, 구양사, 금강회 등은 수십년전부터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혜운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를 포교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인천불교회관 건립(6월경 기공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계종 사암연합회와 적극 협력해 신도교육과 포교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친절운동인천시 본부장,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부회장, 인천 환경의제21 추진협의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는 혜운스님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인천불교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고 말했다. 인천=김재경 기자

한국불상 방콕 대리석사원 '나투다'

세계 각 국의 부처님이 봉안돼 있어 매년 3천만명의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 사원인 방콕 대리석사원에 한국불상이 처음으로 모셔졌다. 14일 오전 9시, 대리석사원 출라롱콘대왕기념관 법당에서 한국의 (재)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 태국 고승인 파라끼띠오니스님을 비롯한 40여명의 한국 및 태국스님, 1백6명의 한국불자, 10여명의 태국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 태 불교문화교류법회가 열리고 한국불상 점안 및 봉안식이 봉행됐다.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과 태국고승 파라끼띠오니 스님이 한 · 태 교류협정서를 교환하고 우호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세계 53개국 청동불과 나란히 봉안

정일스님 한-태교류 협정맺고 법문

이와 함께 한국 불교계와 태국 불교계를 대표하여 정일스님과 파라끼띠오니스님이 한 · 태 불교교류 협정서를 교환하고 서울 보광사와 대리석사원의 자매결연도 맺었다.

태국 전역에 있는 사원 중 가장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지고, 건물 내부가 라카와 황금을 재료로 한 대들보들이 서로 교차되어 웅장한 미를 자랑하고 있는 대리석 사원은 태국에서 성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라마5세 쫄라롱콘대왕(1868~1910)이 왕자시절부터 '세계 각 나라의 부처님을 모시고 세계불교문화를 집대성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1900년 건립한 사찰인만큼 현 라마9세 국왕이 매년 대웅전 부처님의 가사를 직접 입히는 의식을 봉행하고, 사찰의 유지보수에 각별히 신경쓰는 사찰이다.

태국 문화재관리국의 집중관리를 받고 있는 대리석 사원에는 본당과 회랑에 석가모니 좌상, 입상, 고행상, 열반상, 걷는 부처님상 등 중국, 일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티벳 등 세계 53개국의 청동불상이 봉안돼 있다.

대리석사원의 한국불상 봉안은 몇번 추진됐던 사안이었다. 특히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안기부장 이후락씨의 주도로 정부차원에서 불상을 조성해 봉안하려 했으나 화랑에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야외에 에밀레종 모형만 안치했었다.

교류법회는 먼저 태국스님들이 부처님과 동일선상에 마련된 법좌에 나란히 앉아 부채를 들고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집중 하십시오'라는 게송과 함께 축원, 정근, 한국부처님 점안 및 봉안법회, 법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태국고승 파라끼띠오니스님(대리석사원)은 법문을 통해 "한국에서 오신 큰스님과 불자들에게 태국을 대표하여 감사 드린다"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버마, 스리랑카부처님이 모셔진 대리석 사원에 오늘 한국부처님을 모시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오늘법회를 계기로 한 · 태불교 우호협력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한국스님들이 법좌에 앉아 한국식 축원과 정근, 법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문에서 정일스님은 "차별없는 부처님 법은 모두가 일체 번뇌와 차별이 없는 열반의 법이다"며 "북방 남방 소승 대승의 경계가 없는 만큼 참된 진리에 의지하여 열심히 정진하자"고 법문했다. 참가 사부대중들은 법회가 끝난 후에도 부처님전에 연꽃과 향초를 봉헌하며 세계인들의 참배가 잦은 태국 대리석사원에 한국의 불상이 모셔짐으로써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다음날인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이암 왕국(1350~1767)의 수도인 아유타야, 400여년간 태국을 지배하며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왕궁의 모습은 간데 없지만 불심의 향취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아유타와 왕궁 내 사찰 부처님사리탑 3기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치솟아 있 왓 프라시산펫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한 · 태교류법회 단장 정일스님이 야외법단에 올랐다. 대중스님들이 삼배를 올린 뒤 청법게를 하며 법을 청하자 스님은 야단법석을 했다. 순간 주위에 모여있던 한국관광객과 각 국의 외국인들이 밀물처럼 몰려와 법문에 귀를 귀울인다. 스님은 "모든 보이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부처님 몸입니다.부처님 49년 설법은 모두 깨달으면 생사없는 경지에 들어선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생의 명이 다해도 쓸 수 있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라고 설했다.

박호표 관장(충북불교회관, 청주대 교수)은 신도들을 대표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더욱 정진하여 번뇌를 끊고 본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원했다.

태국=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감로사 3천배 법회 '50돌'

내달 4일~8일… "참회로 업장소멸 · 국난극복"

6.25사변 이후 민족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온 감로사 삼천배 참회법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아 3월4일부터 8일까지 5일동안 하루 12시간의 3천배 참회기도와 더불어 지관, 인환, 정관, 성오, 세민, 각성스님 등 스님들의 귀한 감로법문으로 신심을 다지게 된다.

51년 정월 초하루, '국난을 퇴치하는 길은 참회밖에 없다'는 스님들의 뜻이 모여 시작된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는 이제 사부대중의 참회로 이어지며 반세기를 맞았다. 부산으로 피난와 있던 자운, 향곡, 성철, 청담스님 등 여러 고승들이 주석했던 감로사를 중심으로 참회의 공덕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정진의 불씨가 피어난 것. 50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유일한 참회기도법회인 감로사 참회법회에서 개인의 업장소멸과 국가 안위를 발원해 온 불자만도 수 십만명에 이른다.

주지 혜총스님은 "불자들의 부단한 참회기도의 공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불자라면 참회 기도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전통사찰 보존지역 보호

원주시의회 조례안 제정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창운)는 전통사찰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수행 ·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것과 관련, 2월 20일 원주시장이 제안한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전통사찰 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할 때에는 전통사찰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선암사 대웅전 보수

변형 심해…2002년 완공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가 대웅전(전남도 유형문화재 41호)을 보수한다.

2002년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웅전 보수불사는 이달 초 공사를 발주하여 대웅전 해체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비는 선암사 자체부담을 비롯, 국비와 도비 등 총 3억8천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대웅전은 전반적으로 마루귀틀과 청판의 상태가 불량하고 변형이 심한 상태이며 불단 앞 중귀틀은 불상과 불단의 하중으로 인해 장귀틀과의 맞춤부분이 깨지고 부식되어 이탈된 상태에 있다. 또 장귀틀과 내진주와의 맞춤부분도 이완되어 침하상태에 있으며 마루틀의 부분적 침하로 불단이 기울고 뒤틀려 변형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경숙 기자

문화재사범 또 검거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경찰의 공조 수사가 연이어 쾌거를 올리고 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초 경찰서는 대둔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절도범 검거(본보 307호 23면)에 이어 89년 충남 무량사에서 괴한에게 탈취당한 금동보살좌상 등 시가 15억 상당의 문화재를 시중에 팔려던 김 모씨를 검거하고 유물 4점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금동보살좌상과 금동관세음보살, 지장보살좌상은 71년 무량사 경내에 있는 보물 제185호 5층 석탑을 복원하던 중 탑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 89년 7월 흥기를 든 괴한 3명에게 강탈당했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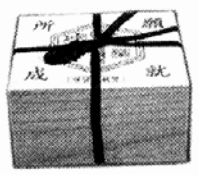
故 이수현 장학재단 설립

자랑스런 불자 고 이수현 유해가 안치된 정수사(주지 원광)는 최근 경내에 설치한 납골당에서 나오는 수익 전액을 고인의 사망 1주기에 '이수현 장학재단(가칭)'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법당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각을 세우는 한편 사망 1주기를 맞아 실제 추모관 건립도 추진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가정을 지켜주는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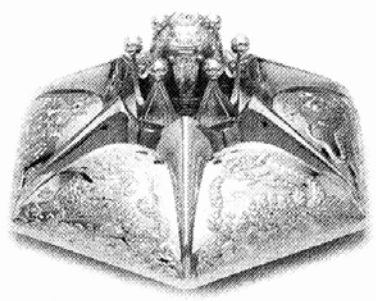
氣란 현실이다.
음, 양 조화가 맞져야 합니다.
※ 좋은 氣가 강해야 강자가 될 수있고,
氣가 약하면 무능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는 것입니다.
※氣란 강, 약, 이 꼭 필요합니다.
강, 약, 이 맞지 않는 기(氣)는 가정에 무능과, 충돌과 불화가 자주 일어 납니다.
※ 육氣방은 중심의 氣로서 가정에 氣의 강, 약, (바란스)을 조절해 주고 청명한 정기(正氣)를 발산하여 좋은 氣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가정에 두십시요.



◆육기방 수호신장 (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고서를 인용하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기(氣)란 : 현실이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이여법칙을 어기지말라."◆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불교용품점, 사찰, 암자, 철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